

<하나님의 섭리>

(JACOB/JOSEPH)



Ebenezer Theological Seminary

<하나님의 섭리>

1. 섭리(Divine Providence)

-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 /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뜻.
-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도 뜻과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간섭하시며, 모든 피조물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것.
- 섭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창조 이후 하나님의 활동으로 구분된다.

2. 섭리의 세 가지 차원 (전통적 조직신학 개념)

① 보존 (Conservatio / Conservation)

- 하나님께서 우주와 생명이 계속 존재하게 하시는 능력.
- 피조물이 존재하게 하고, 제 목적과 역할을 따라 움직이게 하시며, 소멸되지 않도록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히브리서 1:3 하나님은 만물을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며...>

② 섭정 (Gubernatio / Government 통치)

- 하나님께서 세계와 역사, 인간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이끄시는 것.
- 인간의 자유의지와 악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허용되고 사용됨.
(잠언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③ 인도 (Concursus / Concurrence)

-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과 선택안에서도 함께 일하시며, 그 행동이 실제로 인간의 자유로운 행위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
-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단순히 허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며, 동시에 인간이나 피조물의 의지와 행동에도 작용한다는 개념.
-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됨.
(롬 8:28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 섭리와 자유의지의 관계

- 하나님은 인간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시되, 그 선택까지도 자신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창 50:20)

<야곱의 섭리>

※ 모세오경의 기록 시점.

-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전승되고 있음.
- 창조 후 2500년이 지난 BC 15세기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광야 생활 중에 기록되었음.
- 내용은 창조부터 모세 당시까지 약 2500년의 역사를 담고 있으며, 창세기의 경우, 모세가 살던 시대 보다 훨씬 이전의 이야기(창조, 족장시대 등)를 기록한 것임.

※ 지명과 인물 명칭의 후대적 명명.

- 모세오경 안에는 모세 시대 이후에 사용된 지명, 이름들이 과거 사건 속에 등장한다.
- 이는 기록자가 모세 시대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의 명칭으로 후대의 시점에서 다시 서술하거나 설명했음을 의미한다.
- 벰엘(Bethel) : 창28:19에서 야곱이 루스라는 땅 이름을 '벰엘'(하나님의 집)로 바꿈.
그러나 이 명칭은 이후 성경 내에서 과거 사건을 설명할 때도 사용됨.
- 블레셋 : 아브라함 시절에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등장하지만, 역사적으로 블레셋인은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후대 명칭을 소급 사용한 것으로 봄.

1. 야곱은 누구인가?

-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작은 아들.
- 창세기의 중심인물.
- “아케브”(אָקֵב) : 발꿈치를 잡은 자에서 유래.
- “야아코브 엘”(אַבְרָהָם אֱלֹהֵי) :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의 축소형.
(‘야아코브 엘’이란 이름이 애굽왕 15C 투트모세 3세가 점령한 팔레스타인의 지명에 나타나 있다.
8C 유물로 추정되는 메소포타미아의 진흙 서판에서도 발견되었음)

2. 야곱의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야곱의 생애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 첫 번째 섭리는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나되, 형 에서보다 늦게 태어난 것에 있다.
고대 근동의 전통에 따르면, 장자는 가문을 계승하고, 가족을 보호하며, 재산과 축복의 우선권을 가지는 위치에 있었다.

만약 야곱이 먼저 태어났더라면, 그는 이러한 책임과 의무에 매이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야곱이 동생으로 태어남으로써 장자권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미리 주신 말씀 속에 이미 나타난 계획이었다. <창25:23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의 전통이나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에서는 장자였지만, 영적 계승자로 선택된 이는 야곱이었다.

에서는 가족을 보살피는 장자의 길을 가게 하시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영적 지도자의 길로 부르셨다.

- 두 번째 섭리는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열두 아들을 낳게 하였고, 그 자손들은 훗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된다. 이 열두 지파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땅 위에 번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단순하지 않았다. 야곱의 아들 중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심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 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하셨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 총리가 되기까지의 모든 고난은, 훗날 가뭄과 위기 속에서 야곱의 가족을 보존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결국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번성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3. 야곱의 사명과 사역.

- 야곱의 사명은 단순히 한 가문의 족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의 토대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열두 아들을 주셨고, 이들은 훗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어 국가를 구성하는 백성의 기초가 되었다.

- 특히 요셉을 통한 사건은 그 사명을 완성해 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준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리는 사건은 인간적으로 보면 비극이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 장차 야곱의 가족 70여 명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고센 땅에서 보호받으며 번성하는 기반을 마련하셨다.

- 400여 년 후, 그 70여명의 가족은 200만에 이르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국가의 형성이 시작된다.

- 야곱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백성의 형성”이었고, 그의 삶 전체가 그 사명을 향한 하나님 섭리의 흐름 속에 놓여 있었다.

4. 야곱의 수단과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

-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얻기 위해 팔족을 주고 권리를 교환하는 수단을 썼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 형으로 가장하고 속이는 방법을 택했다.
- 그의 삶은 언제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행동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는 라헬을 얻기 위한 7년간의 봉사, 압복 강에서의 철저한 기도와 씨름, 그리고 가나안 정착과 세겜 사건에서도 드러난다.
- 그는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을 얻기 위한 계산된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야곱의 행동은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수단과 방법’의 한계를 드러낸다.

속임수와 전략, 인간적 계산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이런 인간적인 노력과 수단을 단순히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이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준다.

즉, 야곱의 수단과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창25:23) 하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야곱의 생애를 사용하셨다.

야곱이 완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하셨다.

6.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게 된 이유.

성경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른다(출 3:6 외). 이 표현은 단순히 계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인물과 맺으신 언약의 역사와 사명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신다는 선언이다.

- 아브라함의 하나님 : 새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한 이스라엘 국가 건설을 시작. (”Αλφα 알파)
- 이삭의 하나님 : 이스라엘 국가 건설을 위한 기초석.
- 야곱의 하나님 : 이스라엘 국가 완성. (주권 + 영토 + 백성이 구체화 됨) (Ω 오메가)

※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기 때문이며,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에게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언약의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하신다.

6.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야곱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깊은 섭리 아래 있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함과 인간적인 수단을 넘어서서,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계획을 야곱을 통해 이루어 가셨다. 그 섭리는 다음과 같은 사건들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1) 하란으로 보내심과 가족 형성

하나님은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하란으로 피신하게 하심으로써, 그곳에서 라헬, 레아, 실바, 빌하 네명의 아내를 얻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 열두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이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열두 지파가 되는 기반이었다.

야곱은 20여 년간 하란에서 참고, 수고하며, 인내로 가정을 세우고 재산을 축적함으로써 가족 공동체를 돌보고, 이후의 민족 형성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랐다.

2) 요셉을 통한 번성의 섭리

하나님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의 생명을 구하고, 번성의 길을 여는 중추적 사명을 맡기셨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가장 사랑받은 아내였지만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녀의 태를 달아 놓으셨다가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렸으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총리가 되어 기근 속에서 가족을 고센 땅으로 이주시켜 보호하게 되었고, 이로써 야곱의 가족 70여 명은 약 400년 동안 200만에 이르는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3) 재산과 가족의 번성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허락하셨다.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족을 번성케 하였고, 이것은 단순한 부의 획득이 아니라, 가족을 돌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기반 마련이었다.

가족의 번성은 하나님의 구체적 공급과 보호의 상징이었다.(창30:43)

7.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뜻

야곱은 압박 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복을 구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향해 <창32:28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 32:28)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의미가 있다. (‘엘’. 통치하신다)

그러나 그 명칭이 실제로 굳어진 것은, 야곱이 뵤엘로 올라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결단을 내릴 때였다(창 35장).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명칭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정하신 이름이며, 훗날 민족 전체의 이름이 된 것은 이 상징적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8. 아들의 이름과 (장자순) 그 어머니와의 관계.

- 레아 : ①르우벤(보라 아들이라) ②시므온(들으심) ③레위(연합) ④유다(찬송)
⑨잇사갈(값을 치름) ⑩스불론(큰 영화)
- 라헬 : ⑪요셉(더함) ⑫베냐민(오른 손의 아들. 위로)
- 빌하 : ⑤단(심판. 판단) ⑥납달리(경쟁)
- 실바 : ⑦갓(행운) ⑧아셀(복됨)

<요셉의 섭리>

1. 요셉은 누구인가?

- 뜻 : 여호와여 번성케 하소서.
- 야곱과 라헬의 아들. 야곱의 11번째 아들.

2. 첫 번째 섭리

<왜 요셉이었는가?>

-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출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 요셉은 야곱의 두 번째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났다. 그러나 라헬은 야곱의 네 아내 중 가장 늦게 요셉과 벤자민을 낳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일시적으로 달아두셨기 때문이었다.
-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늦게 여신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 계획에 따른 것이었다.
- 요셉의 출생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국가를 이루는 데 필요한 백성의 번성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결정적인 수단이었다.
- 요셉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인도하고, 이들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 라헬의 태를 늦게 여신 것도, 요셉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백성의 번성을 이루시려는 섭리의 한 부분이었다.

3. 두 번째 섭리.

<형제들로부터 종으로 팔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 (왜 요셉이어야 했는가?)

-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 (11th son)
- 만일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일찍 여셨다면, 요셉은 야곱의 2~4번째 아들쯤 되는 비교적 이른 순번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는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편애를 받기 어려웠을 것이고, 형제들도 그를 시기하거나 미워할 이유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 요셉이 가정 안에서 평범한 형제로 자라났다면, 형제들은 그를 해치거나 애굽으로 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 하나님은 라헬의 태를 달아두셨다가, 요셉을 열한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

- 이는 단순한 가족 내의 출생 순서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던 일이었다.
요셉이 라헬에게서 늦게 태어났기에, 야곱은 그를 다른 아들들보다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채색 옷을 입히며 특별히 아끼는 자녀로 세웠다. 이것이 형제들의 시기심을 자극하였고, 결국 그를 죽이려는 계획과 함께 종으로 팔아버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 인간적으로는 불행하고 부당해 보이는 이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였던 것이다.
-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 그리고 장차 태어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다.
- 요셉이 애굽에 팔려 가지 않았다면, 훗날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닥쳤을 때 야곱의 가족은 생존할 수 없었을 것이다.
- 요셉이 태어나는 시점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었으며, 라헬의 달린 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
-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순간도 우연히 흘러가지 않았다.
- 요셉이 고통을 당한 이유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였고, 하나님은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선을 이루고 계셨다.

4. 세 번째 섭리.

<군대장관 보디발의 종으로 팔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

- 요셉이 애굽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린 것은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 하나님 뜻인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시기 위해 한 매체로 사용하기 위해서이다.
- 요셉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장이었다.
- 보디발은 애굽 왕 바로의 경호대장이며 군대 책임자였다. 그의 집은 일반적인 가정보다 조직과 질서, 행정의 중심지 같은 곳이었다.
- 요셉은 이곳에서 관리 능력, 충성, 지혜, 책임감 등을 배웠던 것이다.
- 이는 후에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었다 할 수 있다.

5. 네 번째 섭리.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감옥으로 보내어 더한 시련을 주신 하나님의 뜻?>

-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로 인도되기 위한 한 과정이었다.
- 그 사건을 통해 요셉은 바로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되었고, 총리로 세움받았다. 요셉은 결국 야곱의 가족 전체를 기근 가운데 구원하는 통로가 됩니다.

6. 다섯 번째 섭리.

<감옥에서 술 관원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

- 술 관원장은 바로의 단순히 시종드는 하인이 아니라, 신뢰를 직접 받는 측근 중 측근이었다. 그는 바로가 마시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맡는 최고 책임자, 즉 왕의 생명을 다루는 직책이었다. 따라서 그가 바로에게 추천하는 사람은, 바로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일 것이다.
- 하나님은 보디발이라는 간접적인 통로가 아닌, 바로에게 곧바로 연결되는 ‘신뢰받는 사람’을 준비하신 것이다.
- 보디발을 통해 바로 왕을 연결은 시기상조였을 수 있다. 이는 요셉이 아직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은 감옥에서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을 철저히 다듬으시고 낮추셨습니다.
- 요셉은 술 관원장으로 인해 바로 왕을 만나 꿈을 해석하므로 총리가 되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었다. 술 관원장도 그때 공급하신 하나의 매개체이다.
- 하나님은 하시고자 계획하신 일은 분명히 이루심을 알아야 한다.

7. 요셉은 이 모든 고난의 시련을 어떻게 견디어 냈는가? (요셉의 신앙은?)

-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였다.

8.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는?

- 요셉을 택한 그 소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형제들로부터 종으로 팔리게 하셨고, 그것도 바로 왕의 군대장관인 보디발의 종으로 팔리게 하셨던 것이다.
-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 부르신 자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통해 역사하실 때도 있으시고, 그 뜻을 알고 끝까지 순종하며 따르는 자에게는 존귀를 주시며 그 뜻을 이루신다.
- 소명을 받은 자는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그 소명을 이루시게 하신다.
-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다.

